



## 기자처럼 쓰고 기자처럼 생각하는 법 배운다

2013년 완주 다중지능개발 프로그램 '청소년기자학교' 7주간 교육 마쳐

완주 다중지능개발 진로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완두콩 청소년언론학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청소년언론학교는 지난 11월 16일 오후 완주경천에인권역 활성화센터에서 학생기자들과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갖고 총 7주(12강)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그동안 완주 청소년 언론학교는 신문의 이해, 취재와 인터뷰, 사진과 영상 실습, 편집, 인쇄 등 신문제작 전반에

걸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 중학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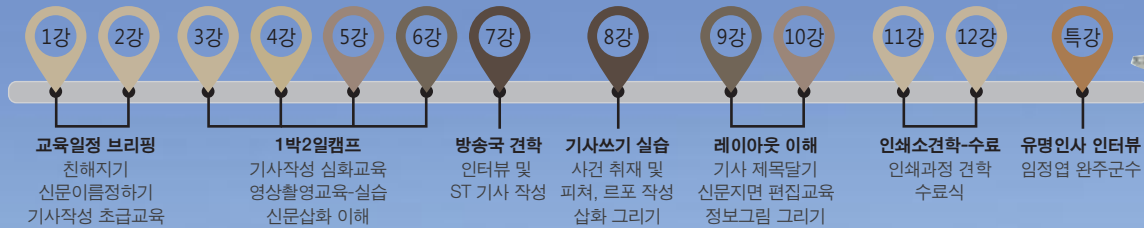
SNS글과 신문기사의 차이, 기사의 종류 등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 기자로서의 소양을 길렀다. 특히 화산 원우마을에서 진행된 1박2일간의 미디어 캠프는 아이들에게 자립심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기회가 됐다. 현직 만평가와 기자, 촬영감독들의 알찬 강연을 통해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직업의 세계를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언론학교 기자들은 방송국 견학을 통해 뉴스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나운서를 인터뷰 하며 본격적인 취재 활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또 최근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사로 쓰고 정보 그래프로 그려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임정엽 완주군수를 인터뷰하며 기자로서의 자신감을 높였다.

### ■ 청소년언론학교 강의흐름도



7주동안 이어진 청소년언론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점프하고 있다.



“기사 쓰기 어렵지만 재밌어요” 다양한 체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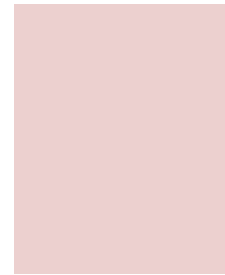
나도 기자다!



7주동안 이어진 청소년언론학교의 교육 과정들. 학생들은 수업 첫날 발행할 신문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조별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했다. 또 카메라촬영감독과 CBS전북방송의 아나운서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취재과정에서 되레 기존 공중파방송의 취재 대상이 되는 신선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 마음키도 꿈도 쑥쑥



도내 일간지들의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한 인쇄소를 찾아가 신문이 취재 편집을 거쳐 인쇄단계를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또 김현수, 송채인 학생은 완주희망TV의 메인앵커를 맡아 다중지능계발프로그램을 보도하는 등 청소년언론학교는 교육과정 내내 완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완주군희망TV, 담쟁이기자단 촬영은 날



완주군희망TV 취재진들이 청소년언론학교 이담인 학생(왼쪽)과 김병진 강사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날 학생기자단은 스태프중 서윤석 촬영감독을 인터뷰했다.



## “카메라앞에 서니 연예인이 된 듯 두근두근”

언론학교 교육 과정-내용 등 직접 리포팅  
학생 두명은 완주희망TV 메인앵커 활약도

완주군 지역경제과 완주희망TV 스태프들이 10월26일 9시 완주군 고산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중인 완주군 청소년 언론학교 담쟁이 기자단을 방문했다.

완주희망TV는 이날 학생들이 기자수업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학생과 교사를 인터뷰했다. 특히 기자단 이담인(13)양이 뉴스리포터로 활약하며, 교육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긴장한 탓에 같은 내용을 5~6차례 이상 연습하기도 했다.

이 양은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며 “앞으로 천천히 말하고, 끊어 읽는 것을 연습해야겠다”고 말했다. 임수민(12)양은 “방송용 큰 카메라가 와서 촬영하니 마치 내가 연예인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기자단의 김현수(15), 송채인(15)학생은 뉴스 스튜디오에서 농축산부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2014년까지 진행되는 13개 다중기능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앵커로 활약했다.

/ 담쟁이기자단

“좋아서 한 일이 직업됐지  
앞으론 수중촬영에 도전”

서윤석 촬영감독

“레디, 액션!”

완주군 청소년 기자학교에서 촬영 온 서윤석(57·비비콤 프로덕션) 촬영감독을 만났다. 촬영감독 계기를 묻는 질문에 34년 경력의 서 감독은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이 직업이 됐다”고 웃었다. 서 감독은 지난해 여수엑스포, 올해 정월박람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뉴스 등 방송에 내 보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연예인을 만날 기회도 많았을 것 같았다. 서 감독은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테프콘 등을 만나봤다”며 테프콘과의 친분을 이야기 했다. 서 감독이 촬영하는 카메라는 무려 8,000만원에 달한다. 서 감독은 “무겁고, 비싼 카메라를 메고 직접 산에 올라가 설경을 찍을 때 가장 힘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 등을 마무리 지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중촬영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카메라 감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취미로 생각하고 즐기면서 일 하길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스마트폰 교육-학습용으로 쓴다” 0명

## 스마트폰 쓰는 완주 초중학생 60명에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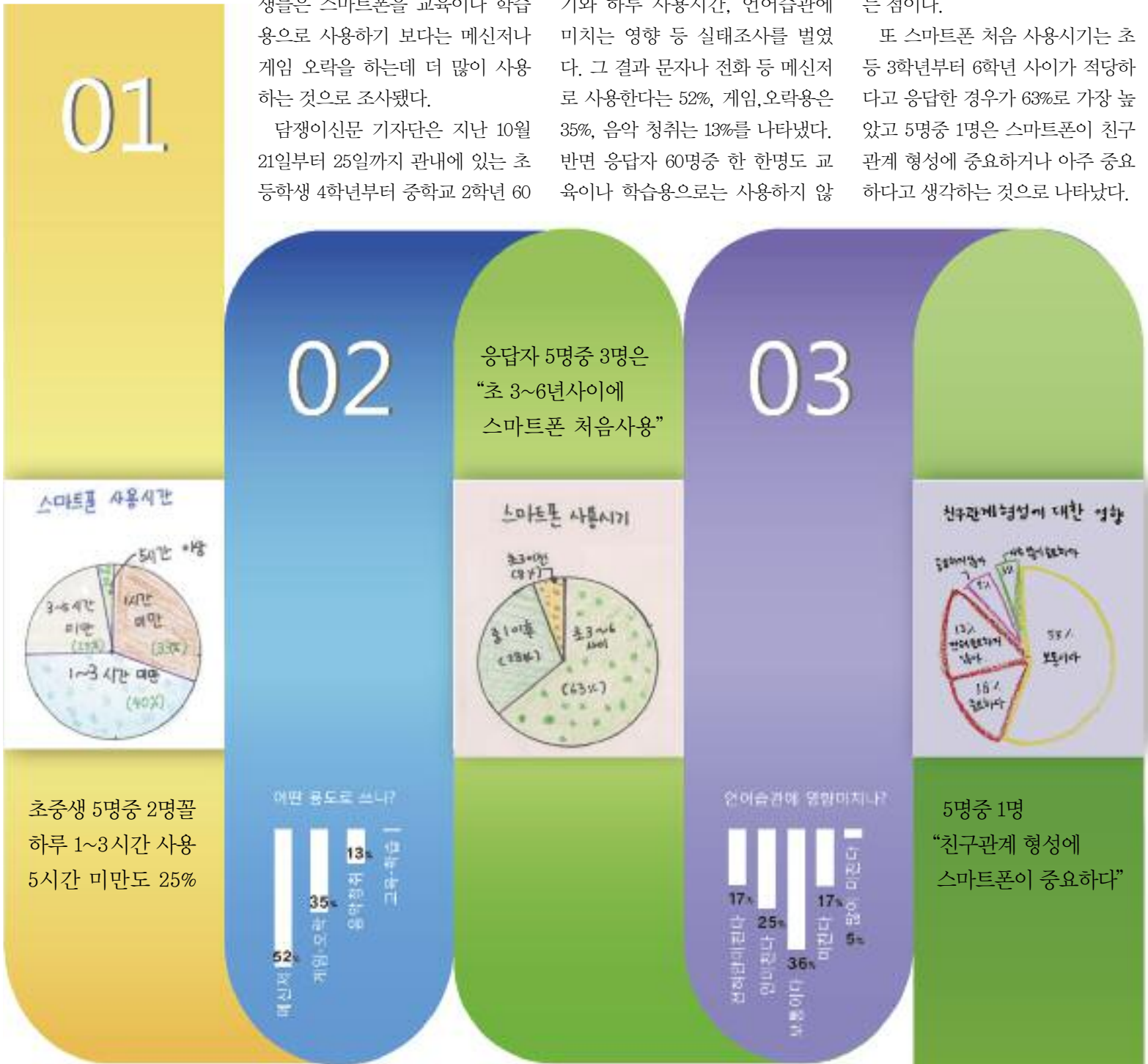
완주군에 있는 초중학생과 중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교육이나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메신저나 게임 오락을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쟁이신문 기자단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 4학년부부터 중학교 2학년 60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첫 사용시기와 하루 사용시간, 언어습관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문자나 전화 등 메신저로 사용한다는 52%, 게임, 오락용은 35%, 음악 청취는 13%를 나타냈다. 반면 응답자 60명중 한 한명도 교육이나 학습용으로는 사용하지 않

는다고 답해 대조를 이루었다. 여학생들은 주로 메신저로 사용하지만 남학생들은 게임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비교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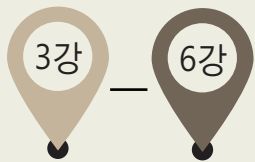
또 스마트폰 처음 사용시기는 초등 3학년부부터 6학년 사이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3%로 가장 높았고 5명중 1명은 스마트폰이 친구관계 형성에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전문**
- 스마트폰 사용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① 초등 3학년 이전 ② 초등 3~6학년 사이 ③ 중학교 1학년 이후
  -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3시간 미만 ③ 3~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 스마트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① 메신저(카카오톡/전화 등) ② 게임오락 ③ 교육-학습용 ④ 음악청취
  -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학교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스마트폰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아주 많이 중요하다
  - 스마트폰 게임을 잘 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스마트폰 사용 후 학교성적이 떨어졌나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자신의 언어습관에 스마트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다 ⑤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친다

★ 손그림 그래프는 기자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것입니다

담쟁이기자단 공동조사  
대상: 고신중, 봉서중, 용진중, 봉서초 학생 60명



## 삼화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로 직접



청소년 언론학교 1박2일 캠프가 지난 10월12일부터 13일까지 완주군 화산면 상호마을 다정관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기자단 소속 학생중 12명이 참가했으며 외부강사들을 초빙해 기사작성법은 물론 영상법, 신문속 그림그리기 등에 대해 배웠다. 특히 참가학생들은 현장기자과 만평가, VJ 등 수준높은 강사진이 참가해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임수민 양(초4년)은 “영상촬영 편집회의를 마치고 직접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동네어르신들을 인터뷰해보니 내가 정말 방송카메라 기자나 감독이 된 것처럼 신나고 재미있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김현수 학생기자



언론학교 학생들이 장미경 VJ의 영상촬영법 강의를 자유롭게 듣고 있다.(왼쪽) 정운성 만평가의 설명을 들으며 캠프관련 삽화를 그리고 있는 아이들(오른쪽 위), 해산물꼬치를 구울 준비를 하는 아이들.



날파리, 더쿠라지, 꼬챙이, 개고면 이상훈, 가마솥 공, 배드민턴, 생생님들, 카메라, 화산중학교, 꼬챙이 냄새, 파리, 모기, 나방, 해풍, 풍물, 산, 숲, 산골, 불, 1박2일

가면 시, 단락을 배제하여 ABC

나쁘다. 눈. 가습기. 사슴새.





# 영상 제작... 가마솥밥 등 이색체험도

## #01. 상호마을 다정관 캠프현장

"캠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

"숙소요!"

"식량이에요!"

"1박2일 복불복이요!"

"보물찾기요~오"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넘치는 이곳은 정운성 선생님(새전북신문 만평가)의 신문용 삽화그리기 수업이 한창이다.

어린이 기자단은 캠프관련 그림을 그리기 위한 소재찾기에 마치 게임처럼 참여하고 있다. 정운성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많이 그려보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단은 담쟁이 신문에 실을 1박2일 캠프 스케치 기사를 돋보이게 할 삽화를 그려보라는 주문에 낙서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그림을 그려 함박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상품인 문화상품권은 모기에 물려 울고 있는 어린이를 그린 송진선(초4)학생과 다양한 소재를 잘 어우러지게 그린 김현수(중2)학생에게 돌아갔다.

## #02. 상호마을 다정관

"선생님! 정읍 수해현장에 가셨을 때 사람이 죽은 것도 보셨나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할머니와 아들이 산사태에 휩쓸렸는데 아들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 현장을 기사에 자세히 묘사했는데 이런 형식의 기사를 르포라고 해."

김병진 선생님의 기사작성법을 듣는 기자단의 표정이 진지하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기자수첩에 메모해가며 당장이라도 사건현장을 찾아갈 듯 의욕이 넘친다. 1박2일 언론캠프에 참가한 이들은 이날 스트레이트, 피쳐, 르포, 해설 등 기사의 종류와 구성, 작성법에 대해 배웠다.

김현수 학생(중2)은 "신문을 읽었을 때 기사는 간단하고 쓰기 쉬울 줄 알았는데 지켜야할 원칙도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놀랐다"면서 "기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것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 #03. 상호마을 이골목 저골목

"아이고~ 할아버지 동안이시네요. 어디 갔다오시는 길이세요?"

"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하고 동네

바람쐬러 나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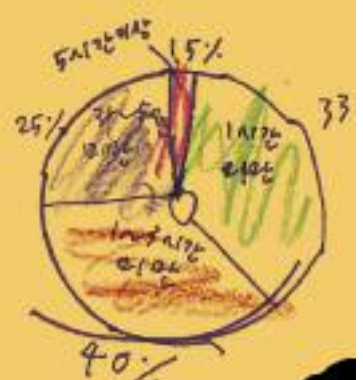
햇볕이 짙게 쬐는 오전 11시. 완주 상호마을 골목은 청소년기자단의 촬영으로 분주하다.

한 팀이 된 PD 송성용, 카메라맨 김준현, 리포터 김현수군. 촬영에 앞서 무엇을 찍을지 편집회의를 마치고 무작정 마을로 나가 할아버지 한 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다. 팀원중 연장자인 김현수 군의 능청스러운 너스레에 할아버지도 쉽게 말문을 여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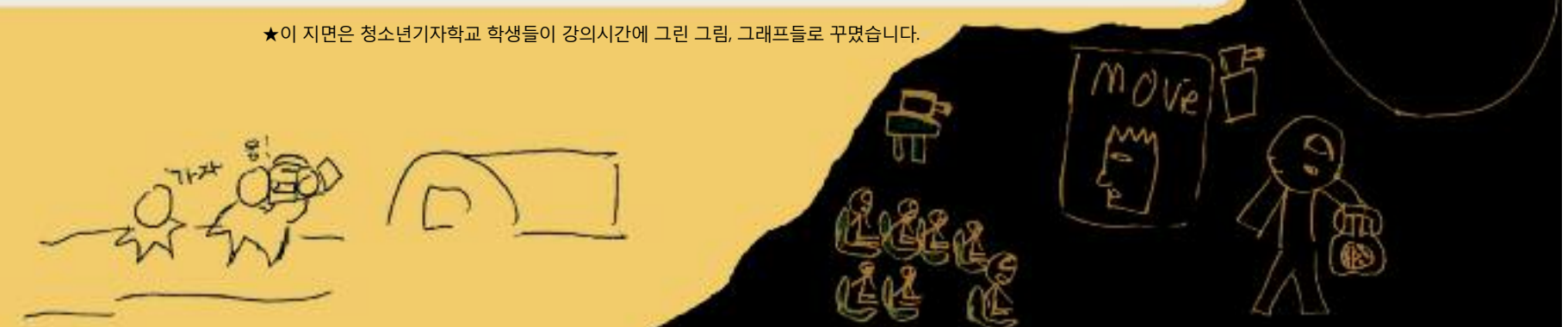
총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자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해 온 결과물을 함께 보며 품평회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를 담당한 정미경 선생님(VJ, 영화감독)은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 온 영상을 보니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것도 있네요. 가마솥과 동네 개를 인터뷰해 온 팀원들도 재미난다"며 감탄했다.

학생들은 "내가 진짜 방송 스태프가 된 것처럼 흥분되고 직접 촬영한 것을 팀원들과 함께 보며 웃다보니 같이 교육받는 친구들이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 좋다"며 웃었다.

/ 김현수, 송성용, 송진선 학생기자



★이 지면은 청소년기자학교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그린 그림, 그래프들로 꾸몄습니다.





## “꿈 크게 꿀수록 고난 이길 큰 힘이 생긴다”



### 담쟁이신문 기자단이 임정엽 완주군수에게 물었다

다중지능개발프로그램중 하나로 운영된 완두콩 청소년기자학교 ‘담쟁이’ 기자단은 11월 18일 오후 4시 완주군청을 방문, 임정엽 군수님을 인터뷰 했다. 초중학생 신분으로 한 자치단체의 수장을 인터뷰하는 일에 학생기자단은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60여분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봤다.



- 이담인: 군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정엽 군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군수가 하는 일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다양한 일도 있지만 군 전체를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서진 길도 고치고 주민들이 불편

한 일 없는지 학생과 학부모의 힘든 일,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그런 일을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완주군은 어떤 완주군이든 좋을까, 이를 위해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듣고 다니고 10년후 완주군은 어떤 완주군이든 좋을까, 그런 완주군을 디자인, 설계하는 일을 하지요. 금년에는 완주군은 뭘하고 내년에는 뭘 할 것인지, 10년 후에는 완주군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그림도 그리고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 하는 거죠.

- 이담인: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임정엽 군수: 일상적인 것은 빼고도 날마다 다르죠. 명시적으로 군수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찾아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하루



**완주의 초중학생을 대신해 물었어요**

언론학교 학생들이 지난 18일 오후 4시 완주군청사를 방문, 임정엽 군수를 인터뷰했다. 임 군수는 학생기자단의 질문에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며 진지하게 답변했고 기자들은 궁금한 것들을 학생다운 풋풋함으로 물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임 군수는 기자단에게 집무실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일과는 아침에 오면 이전에 있었던 거 어제는 무슨 일 있었는지 정리 하고, 그리고 또 면담 신청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야 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을 합니다.



- 임세현: 왜 군수가 되었는지?

- 임정엽 군수: 아버지(임정엽 군수님은 자신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군수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정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군수죠. 군수는 군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토대를 놓는 일을 하는 거죠.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예측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죠. 지도자가 일을 잘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죠. 힘있는 사람만 행복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 임세현: 군수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일과

보람있는일 꼽는다면.

- 임정엽 군수: 이중 왼손 쓰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오른손으로 쓰라고 하면 쓰기 쉽지 않듯이 어떤 일에 관한 생각은 잘 안바뀝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과거의 관행,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보람있었던 일은 주민과 공무원과 전문가들과 힘 합쳐서 살아 있는 주민자치, 주민들이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는 일을 통해 지켜야 할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농촌에서도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인공이 되고 완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과정이 가장 기뻐요.



- 김현수: 군수님 학창시절이 궁금해요.

- 임정엽 군수: 아버씨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운동 좋아하고, 책읽는 것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서리(농작물 따먹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는 흥이 아니었어요.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죠. 책도 좋아하고 개구쟁이 짓도 많이 했지요.

- 김현수: 좋아 하는 아이들, 가수 있나.

- 임정엽 군수: 서면질문지 받아보고 생각해

봤는데 특별한 가수는 없는 것 같고 소녀시대 많이 들어봐서 좋아합니다. 당차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특히 태현양 좋아합니다. 이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가?

- 김현수: 애창곡은.

- 임정엽 군수: 나훈아의 '사랑', '꽃중의 꽃'을 좋아합니다. 곡도 좋고 노랫말도 좋아서(한소절 불러주셨다).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들도 뭘 하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성공은 보너스로 오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면 힘들죠. 완주는 에듀센터(고산면 소항리 창포마을)가면 주말에 상담해주는 선생님에게서요. 꿈을 좀 크게 꾸면 좋겠어요. 목표가 크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기 때문에 자잘한 작은 일은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잘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뭘지 챙겨야 합니다.

- 송채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많은데 떨리시지 않은지.

- 임정엽 군수: 당연히 떨립니다. 말을 잘 하려고 하면 떨립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된 내 생각을 이야기 하면 덜

<10면으로 이어집니다>



**기념촬영**

청소년언론학교 기자단이 임정엽 완주군수와 인터뷰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면에서 이어집니다>**

떨리지요. 어떤 자리에 가서 말 할 때 평소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을 하면 덜 떨린다.

누구나 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덜 떨게 되지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떨치도록 친구들과 자주 토론하고 발표하는 공부도 하면 좋겠습니다.



- 송채인: 완주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요.

- 임정엽 군수: 옛날 완주군은 별로 자랑스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주군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옛날 완주군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면 전주에 산다

고 했어요. 왜냐하면 완주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이 쉬워졌어요. '농업농촌의 수도,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할 수 있고 농촌사업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더 큰 자산을 대한민국 먹을거리 정책의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경향을 만드는 '로컬푸드 1번지 완주'라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 김현정: 새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 임정엽 군수: 이 중에 반장 있어요? 반장이 피곤하면 그 반은 좋아집니다. 아저씨가 생각할 때 사회나 가정도 같아보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버지가 현

신한다면 가족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저씨가 군수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찾아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특별히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하는 것 보다는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완주지역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임정엽 군수: 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인터뷰 뒷이야기**

**당일 바뀐 인터뷰 시간... 수업중인 기자들에게 연락하느라 진땀**

청소년언론학교기자단이 임정엽 군수를 인터뷰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완주군에 처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는 흔쾌히 약속이 받아 들여져 예상보다 일찍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군수님이 워낙에 바쁘시고 일정 또한 빡빡해 두 차례 정도 약속 시간이 바뀌었다. 결국 약속은 11월 18일 오후 5시로 확정됐다.

문제는 당일 오전 10시께 터졌다. 갑자기 인터뷰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자는 연락이 온 것. 이미 5시로 연락이 된 터라 수업중인 청소년 기자들에게 연락하기란 쉽지 않았다.

기자들의 어머니, 학교측의 도움으로 겨우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이서지역 기자들은 연

락에 착오가 생겨 인터뷰가 끝난 4시 50분이 돼서야 군청에 도착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게다가 김현수기자의 경우 이담인, 김현정 기자가 직접 봉서중학교를 방문, 한창 수업 중인 김 기자를 모시고(?) 나오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학생기자단은 서둘러 군청에 도착, 군수실에 들어갔다. 군수님은 학생기자단을 웃는 얼굴로 매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짐무실은 생각보다 이담했고, 책상은 한참 일 하시던 중이라는 흔적을 보여주듯 정리되지 않은 느낌도 들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이 시작됐으나 아찔! 또 문제가 생겼다. 기자들 대부분이 취

재수첩은 챙겼으나 볼펜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을 들고 가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태가...

이를 눈치 채신 군수님이 손수 펜을 챙겨 주신 덕분에 모두 잘 받아 적을 수 있었다.

인터뷰 중반쯤 임세현기자가 "왜 군수가 되었는지?" 질문하자 군수님은 "세현 양이 생각해낸 질문인지 선생님이 만들어준 질문인지?" 묻기도 하셨다. 또 김현수기자가 "군수님 책상 위에 있는 고문서가 무슨 책이에요?" 인지 묻자 '논어' '용비어천가' 라고 설명하는 임 군수에게 "와! 그런 한자로 된 책도 읽을 수 있느냐"고 되물어 짐무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 7강 방송-아나운서의 세계를 **살짜!** 엿보다

**ON AIR** CBS라디오 방송국 견학... 방송시스템-뉴스룸 취재

지난 10월 19일 오전 10시경 완주군 완두콩 청소년 언론학교 '담쟁이 기자단' 이 CBS라디오 방송국을 견학했다.

이날 방송국 3층 연주실에서 만난 노인호(59) 엔지니어는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 기계들의 명칭과 사용되는 곳을 알려주었다. 또 학생들에게 라디오 주파수인 FM(장파)과 AM(단파)의 차이를 알려주며 라디오 방송 제작 시스템을 설

명했다.

이후 담쟁이 기자단은 오전 11시 CBS 유연수 아나운서(30)가 진행하는 뉴스진행을 지켜봤다. 한 때 유 아나운서는 10대 때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연습생이었다. 5년이나 연습 했지만 데뷔가 쉽지 않았다.

유 아나운서는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에 호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아이돌 데뷔의 꿈을 접고 방송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만의 특기를 기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수 지망생이었던 시절 쌓아둔 노래실력, 목 관리법 등이 아나운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단은 CBS 앞마당 심터에서 견학을 통해 느낀 점, 배울 점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담쟁이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자신이 담당해야 할 기사를 정한 후 다음주를 수업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담쟁이기자단



인터뷰를 마친 유연수 아나운서와 담쟁이 기자단, 강사진들이 뉴스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앉은 이가 유연수 아나운서.

# 꿈 꾸는 아이들 ... 꿈을 찾는 아이들 ...

## ■ 2013 다중지능계발 진로교육사업

사업명	영역	학교	주요내용
영화의 Dream 새터글 Drama 2막2장	공간 자기성찰	삼례중앙초	- 영화제작활동, 애니메이션 (유적비디오, CF만들기) 등
꿈살메 뮤직 포레스트 (음악창작 놀이터)	음악 언어	삼례초	①오르프 악기교실 ②동요 수피아 - 완주군 로고송 제작 등 ※기존보유악기 활용
완주군 청소년 과학축제 페스티벌 'Wonderful DAY'	논리수학 자연	봉서중	①토요과학교실 (과학체험활동, 별자리관측 등) ②청소년 과학페스티벌 운영
영화로 창의력 길어 올리기	공간 자기성찰	소양중	①영화 제작활동(동아리) ②체험활동, 제작영화 시사회
나의 진로를 찾아서	자기성찰	완주중	①진로검사 및 각종 직업체험 ②진로박람회 참가 등
시와 문학을 통한 신체적표현(무용)활동	신체지능 언어	전주예술중	①시와 문학을 신체적 표현(무용)으로 표현하여 창작 작품구성, 발표 (무용전공학생)
다독다독 독서퍼즐 놀이터	언어 자기성찰	아청인친	①그림형제 동화집 3권 읽기 ②생각발표, 토론, 글쓰기 등 ③독서퍼즐 풀기(다독다독) ※작은도서관 활용 지역별 진행
청소년 기자학교	언어 자연	완두콩	①취재, 기사작성, 촬영, 편집, 신문제작 ②학생신문/교육신문 등 발행 ※ 기타 활동사항 - 완주마을소식지 '완두콩' 제작 등
DIY(Design It yourself) 다중지능 강점지능계발 프로젝트	공간 논리수학	고산초	①창의공작소-DIY공방목공교육 ②부모+자녀와 함께 목공방운영 ③목공산출물의 지역사회 기부
살아있네~살아있어!! (학교에서 1박2일)	8가지 영역	고산중	①다중지능 캠프 (전학년, 학교에서 1박2일) ②다중지능 강점지능 동아리 활동 ※학부모회+고산지역공동체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 활용
꿈을 연주하는 학생오케스트라	음악 인간친화	구이중	①학생 오케스트라 활동 ②진로직업세계 탐색 ※지역축제 발표 ※기존 보유악기 활용(교과부 지원)
봉서중 '드림하이' 영상제작	자기성찰 공간	봉서중	①영상제작 및 영화제 출품(상영) ②진로탐색 활동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축구단	신체 인간친화	완주중	①축구부 진로탐색 체험활동 ②리더십 강연, 스포츠활동 국제교류 ※스포츠 기부 활동

특집

### 다중지능계발사업 12~15면

영화-무용-목공 등 13개 진로 탐색 사업  
언어-음악-성찰 등 다양한 영역서 진행

아이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영화나 CF를 만들어보고 목공을 배우는 등 학습외적인 활동도 많다. 자치단체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지역창조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완주군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현장을 살펴봤다.

올해 완주군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은 모두 13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초·중학교와 완주CB공동체,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은 공간 및 자기성찰, 음악, 언어, 자연, 논리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학교 및 공동체별 프로그램은 스마트 무비(삼례중앙초), 음악창작놀이터(삼례초), 토요과학교실(봉서중), 영화제작활동(소양중), 진로검사 및 직업체험(완주중), 신화 문학을 통한 신체적 표현활동(전주예술중), DIY공방목공교육(고산초), 1박2일 진로캠프 및 강점지능 동아리활동(고산중), 꿈을 연주하는 학생오케스트라(구이중), 드림하이 영상제작(봉서중),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축구단(완주중), 다독다독 독서퍼즐놀이터(아청인친), 청소년 언론학교(완두콩) 등이다.

완주군 행정지원과 인재육성담당 유지숙 계장은 “지역 창조사업으로 진행한 다중지능계발프로그램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강점지능을 강화하고 약점지능을 보완해줌으로써 아이들의 미래진로를 탐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완주지역 초중교사-강사 대상 다중지능 검사-진로교육

완주군은 11월 15~16일 이틀간 완주 지역 초·중학교 교사와 교육공동체 교육강사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진로교육 과정 교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지능과 진로교육을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 다중지능 기본 이론을 통한 다중지능 시대의 교사, 부모의 역할과 다중지능 진로 지도법을, 둘째 날에는 검사 실시 방법, 검사결과 해석, 검

사결과 상담과 적용 과정을 각각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중지능 검사자 자격시험을 통해 검사자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연수 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다중지능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만들기를 위해 진로 교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알고, 즐거운 직업을 가져야 됨을 강조하였다.





# 연출-기획-촬영-편집도 모두 우리가 직접 다 해요

## ① 삼례중앙초 - 영화동아리 '스마트 무비'

'큐~'.  
"좋습니다."  
교정에 큐사인이 울려 퍼지자 10여명의 학생들이 작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이곳은 삼례중앙초 영화동아리 '스마트 무비'의 촬영현장. 이날 학생들은 완주군 UCC 공모전에 출품할 영상물을 촬영중이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감독이 되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배우가 됐다. 지도교사가 있지만 학생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역할만 했다.  
삼례중앙초 영화동아리는 올해 완주군 다중기능개발프로그램에 선정돼 그 예산지원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다. 영화동아리에는 4~6학년 학생 2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

는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화동아리 활동은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됐다. 기본지식을 쌓으려 캠프를 통해 CF를 제작해보고 실습위주의 영상물을 만들어봤다. 지도교사 문해복씨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물은 완주군을 홍보하는 작품으로 연출과 기획, 촬영, 편집을 모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완주군 홍보를 위해 박현빈의 노래 '사방사방'을 개사해 녹음까지 해놓았다. 지금은 녹음분량 3분2초에 맞춰 영상을 만들고 있다. 축제와 관광지, 특산물을 소개하며 완주군은 매력 넘치는 곳이니 많이 오라는 내용을 노랫말에 담았다.

체력단련중인 행복한 축구단



## 꿈과 열정으로 뛰다

## ② 완주중 - 행복한 축구단

완주중은 올해 축구단원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완주군 다중기능개발프로그램에 신청해 선정됐다. 일명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축구단'.  
축구단은 체육중점학교급으로 운영돼 국영수 등의 일반 과목 외에 골프, 수영, 승마, 인라인스케이팅 등의 다른 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 리더십 등의 별도과목을 배운다. 모두 다양한 진로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앞서 전북대 체육학과 정경희 교수를 초빙해 리더십 교육을 가졌고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 이철근 단장,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 전라북도 생활체육연합회 유창희회장 등을 초대해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삼례중앙초 영화동아리 '스마트 무비'의 회원들이 완주군 UCC공모전에 낼 작품을 찍은 뒤 플레이하우스 카메라 앞에 섰다.

# 시골학교는 관현악 연주중

## ③ 구이중 - 오케스트라

Orche  
Stra  
2013

구이중학교 음악홀. 각종 악기 소리로 소란스럽던 홀 안이 지휘자 선생이 연단에 서자 엄숙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얼마간의 호흡을 가다듬고 지휘가 시작되자 홀 안은 순식간에 장엄한 음악으로 가득 찼다.

구이중 오케스트라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운영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주 2회하던 레슨도 올해부터 주 1회로 줄었다. 그러던 차에 올해 완주군 다중기능개발사업에 선정되며 다시 주 2회로 레슨이 늘었다. 여름방학엔 캠프도 가졌고 9월엔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단원들은 매일 점심을 이용해 개인연습을 하고 화요일은 함께 모여 합주연습을 한다. 단원은 모두 57명으로 구이중학

생 50%가 참여했고 여기에는 구이초등학교 학생 4명도 포함돼 있다.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있다. 음악에 소질이 있고 우수한 아이도 있고 정반대인 아이도 있다.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키웠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전체 학생 수도 조금 증가했다. 오케스트라 때문에 구이로 이사 온 사례도 생겼다. 아이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 와서 연습할 수 있다. 평소 복도나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개구쟁이들도 음악홀에 들어서면 차분해진다. 단원들은 기본적으로 기타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웬만한 악기는 다 갖췄고 강사들도 훌륭해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독후활동중인 아이들



## 책 읽고 독서퍼즐 풀며 집중력 키운다

### ④ 아청인친 - 독서퍼즐 놀이터

봉동을 완주장애인복지관 2층 동아리방. 초등학교 10명이 독서퍼즐 맞추기에 푹 빠져 있었다. 이곳은 완주 CB공동체 아청인친이 마련한 다독다독독서퍼즐 놀이터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봉동을 비롯해 완주지역 8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수아(봉동초 6)양은 “한 주에 그림형제 동 화책을 집에서 읽고 오면 이야기 나눈다”며 “책 소개를 한다든지 퍼즐을 같이 풀고 짧은 글짓기나 낱말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지도강사 이미옥씨는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 짧게, 매번 조금씩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26일 마지막 수업을 가졌다. 8곳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면 한데 모여서 독서 골든벨을 치를 계획이다



연습중인 중년 단원들



전주예술중 무용과 학생들의 공연연습이 한창이다.

10월 7일 전주예술중 강당에서는 무용과 학생들의 막바지 공연연습이 한창이었다. 의상을 갖춰 입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아래 끊임없이 움직였다. 땀과 거친 숨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학생들의 이런 노력은 10일 저녁 '시와 문학을 통한 신체적 표현활동'이라는 무대로 결실을 맺었다.

학생들은 이날 한국의 사계와 그에 어울리는 시를 춤으로 창작해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도 완주군 다중기능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작품은 총 4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인 겨울은 도종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봄은 이장희 시 '봄은 고양이로다', 여름은 신경림 시 '동해바다', 가을은 조병화 시 '가을'이 선택됐다.

겨울은 초창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봄은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새싹, 여름은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 속 친구관계를, 가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꽃 피운 결실을 이야기한다.

공연에는 무용과 1, 2, 3학년 29명이 참여했고

초등학생인 영재반 어린이들이 봄파티에서 고양이를 흉내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방학 때부터 땀을 흘렸다. 시를 외웠고 파트별 춤을 익혔고 가을편 4장을 위해 수화를 배웠다. 전주예술중 무용교사 정경희씨는 "여름방학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며 "그 많은 걸 잘 소화해 내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 수준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학교와 달리 예술중학교는 레슨비가 들어가 가정의 부담이 큰 편이다. 정씨는 "다행히 다중기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것도 많다. "처음 시를 외울 때는 힘들어했지만 그걸 외우고 나서 수행평가가 올라갔어요. 국어시간에 했는데 직접 적으로 바로 도움이 돼서 좋았죠. 문학적 표현이나 자연을 느끼는 등 학생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씨는 어떻게 하면 예술하는

⑤ 전주예술중 - 시문학 몸으로 표현

## 시-문학작품 춤으로 표현하며 교감나눠요

⑥ 고산초 - 목공교실 “아이들 성정도 온화해져요”

고산초등학교 교정 한 편에 자리 잡은 창작공작실. 토요일이면 두 평 남짓한 이곳 공작실이 시끌벅적 해진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목공교실이 열리기 때문이다. 고산초 목공교실은 올해 완주군 다중기능개발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여름방학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15 차례가 계획돼 있다.

10월 5일 찾은 목공교실은 목재를 다듬고 색칠하는 작업으로 부산했다. 참여한 가족들은 목공소품을 가지고 다정하게 때론 옥신각신하며 휴지수납통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바니싱(목재보호를 위한 코팅작업)을 하고 있

던 김준경군은 "처음해보는 거라 서툴지만 평상시 쓰던 물건을 직접 만드니 재밌다"고 했다. 오효은양도 "잘 만들어 집에 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거들던 엄마 김혜순씨는 "함께 쟁반도 만들었는데 딸애가 무척 좋아했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지도강사 박은미씨는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박씨는 "아무래도 나무의 성질이 따뜻하니 아이들도 온화해 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나무로 만든 개인달력과 쟁반, 협동작품으로 3단 책장을 만들었다.



다 만든 휴지걸이에 바니시를 바르고 있는 아이들.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완주 마을이야기  완두콩

- ✉ 완두콩 후원 독자가 돼 주세요.  
후원독자 월 10,000원, 그냥독자 월 2,000원
- 👤 완두콩 마을통신원(기자)이 돼 주세요.  
글 못써도 괜찮아요. 남녀노소 제한 없어요.
- 💡 완두콩 필진을 추천해 주세요.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대표전화 063-291-8448 홈페이지 <http://www.wandookong.kr>